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18일)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첫 삽' 뜬 군포교 전진기지 불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24일 계룡시 계룡대 불사 현장부지서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부석종 국군불교총신도회장(해군참모총장) 등 사부대중은 군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호국 홍제사의 불사 원만성취를 기원하며 시삽과 조감도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사진은 불자대중이 화려한 폭죽을 터트리며 시삽하는 모습이다.
계룡대=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5면〉

소임자 역대 최대…'일하는 비구니회' 실현

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1년, 성과와 과제는

집행부 · 운영위 등 150여 명
대중공의 · 소통 위한 결과물
위원회의 신설로 투명성확보
비대면교육의 시스템 안착도
복지를 위한 기틀마련 '화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12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본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실천'을 내걸고, 비구니 승가복지 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대사회역량 확대, 전국비구니회 내실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포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난관에도 상당부분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특히 12대 전국비구니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소임자가 활동 중이며 추진력과 실행력에서 그야말로 첫 손으로 꼽을 만큼의 활동성을 보이고 있다.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이례적일 만큼 압도적인 성과를 일궈냈다는 시각이 많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조직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운영시스템을 체계화했다. 특히 기존에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등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 위원회를 출범 · 가동함으로써 대중 공의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현재 가동 중인 제위원회는 인사 · 포상 · 징계위원회, 회칙제 · 개정위원회, 원로 · 명사추대위원회, 감사위원회, 복지정책위원회, 회장선출위원회, 종회의원선출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8개다. 향후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회칙제개정위원회 활동도 눈에 띈다. 그간 미비했던 운영규칙과 회칙을 면밀히 살펴 개정안을 도출했으며, 회장 선출 등을 규정한 선거법도 지난 6월 열린 28차 운영위원회와 13차 정기총회를 거쳐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이를 통해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체계적인 기틀이 확보됨은 물론이고 원칙과 규정에 따른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업무 효율 극대화

12대 전국비구니회가 회장 본각 스님의 공약인 '일하는 전국비구니회'의 현실화를 위해 집행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호법부와 섭외부 등 역할이 불분명했던 부서를 없애고 실질적인 역할에 따라 부서를 통폐합해 1실(기획실), 6개부(총무부, 재무부, 교육부, 문화포교부, 사회복지부, 국제부)로 개편했다. 또 각 부서별 업무분담표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회칙에 명시한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와 함께 사찰음식연구소와 차문화연구소를 부설기구로 신설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비구니승가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전국 19개 전국비구니회 지회를 새롭게 구성해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성과다. 지회별로 선출하는 운영위원회 배정인원도 서울 · 부산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분류에 중앙본회와 전남광주, 경북 1 · 2지부, 경남1 · 2지부 등을 추가하는 등 재편했다.

그 결과 12대 전국비구니회는 소임자 수만 역대 최고다. 회장단 7명, 집행부 14명에 부설기관과 법룡사 소임자만 30명이 넘으며, 전국 지회 소임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스님만 110여 명이다.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전국비구니회 운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 교육시스템 안착

올해 지속됐던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이 컸던 분야는 교육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계종 연수교육을 비롯해 일상 의례 · 염불, 설법 · 스피치, 경전강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올 3월부터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비구니회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체계를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이후 다양한 강의들이 대면 · 비대면 동시 활용으로 진행됐다.

비구니 승가복지

전국비구니회의 또다른 화두는 '비구니 승가복지'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최근 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정관) 주도로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각 스님은 "출가자 수는 줄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 한 분 한 분이 점점 더 소중하고 귀하다"며 "전국비구니회가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안정적인 삶과 수행, 다양한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고민하고 소통하겠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2면〉

신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신임 원로의원 우경 스님 선출
대종사 · 명사 법계 심의 의결


무관 스님


우경 스님

조계종 종단 최고의 계사인 전계대화상에 현 법계위원장 무관 스님이 추천됐다. 신임 원로의원에는 제23교구본사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 ·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현 전계대화상 무봉성우 대종사의 12월 14일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전계대화상으로 무관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무관 스님은 1959년 월정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4월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종사법계를 품수했다.

무관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임원과 단일계단 사미 · 사미니계 수계산림 전계3사,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아사리, 제8 · 10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의제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로회의의 추천을 받은 신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은 종정예하의 위촉을 받게 된다. 임기는 임기는 12월 15일부터 3년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으로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원로의원에 추천한 바 있다.

우경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23교구본사 관음사 회주로 있다.

이날 원로회의는 종단 최고 비구 · 비구니 법계인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해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능엄(직할교구) · 청화(직할교구) · 종상(직할교구) · 함주(법주사) · 지명(법주사) · 의현(은해사) · 법달(불국사) · 관우(불국사) · 수성(해인사) · 성주(해인사) · 천제(해인사) · 중천(해인사) · 혜장(해인사) · 청현(송광사) · 현문(송광사) · 범종(송광사) · 현봉(송광사) · 우경(관음사) · 혜산(선운사) · 법현(선운사) · 대우(선운사) · 범여(선운사) · 재곤(선운사) 스님 등 총 23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게 됐다.

또한, 명수(직할교구) · 혜준(직할교구) · 명우(직할교구) · 묘순(직할교구) · 성일(용주사) · 육문(은해사) · 일초(해인사) 스님 등 총 7명의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체 23명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전국 선원 경자년 동안거 결제

진제 종정예하 법어서 용맹정진 당부

불기2564년 경자년 동안거가 결제됐다. 전국 선방에 방부를 든 납자들은 3개월 동안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11월 29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동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산문을 폐쇄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정진하는 것은 오로지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는 데 있다"며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증득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혼신의 노력을 하면 다겁다생(多劫多生)에 지어온 모든 습기(習氣)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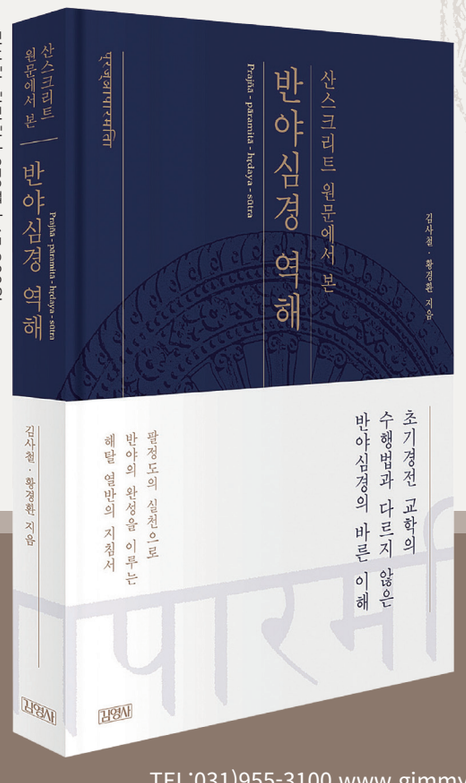
한편, 불기2564년 경자년 동안거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는 2000여 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 · 방장 법어 4면〉

깨달음에 이르는 21세기의 로드맵
명상으로 증명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반야

저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대승불교공부를 30여년간 해 왔지만 솔직히 말해 이 반야심경의 大意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20여년전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선구자 김사철박사와 산스크리트원문에서 본 반야심경을 공저로 출판한후 다시 초기불교의 기초지식을 익히고 점검하고 쌓은후 이번에 개정증보판을 한국불교1600년史에 밝혀지지 않았던 반야심경 말미의 다섯 만트라의 비밀을 풀다라는 각주를 달아 출간하게 되었다.
반야심경의 대의는 심경말미의 다섯 만트라(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 스바하)로 설명하고 있다.

김사철 · 황경환 | 272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Prajñā - pāramitā - hṛdaya - sūtra

추천사
"이 책은 초기불교의 공(空) 개념을 《반야심경》의 공 해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이제 까지의 해설서에서 간과되어왔던 계(戒)의 중요성을 새롭게 읽어내고, 이것을 정(定)과 혜(慧)의 삼학(三學)으로 엮어 말미의 만트라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너무나 친숙하여 오히려 무심하게 낭송해 왔던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돌이켜보도록 자극하고 있다."
_임승택(경북대 철학과 교수)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_강성용(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